

작품 내용

제 목	작품 뒤편에
내 용	사진 한 장을 저장하려다 손가락이 잠시 멈춘다.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눌렀던 저장 버튼.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, 이 빛은, 이 구도는 누구의 기다림이었을까 누구의 새벽이었을까 이름 하나를 적는 일은 몇 글자 되지 않지만, 그 몇 글자가 누군가의 시간을 돌려준다 출처를 남긴다는 것은 사진 아래 작은 글씨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는 일이다